

손 “사내벤처로 혁신… 자율 점검체계로 고객신뢰 회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융, 飛上 2020 전략

(4) 우리금융그룹

2020년 목표 ‘고객신뢰·혁신’
기업투자금융 등 미래성장 강화
사내벤처 제도로 조직혁신 추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홍유릉에서 고객신뢰와 혁신으로 1등 종합금융그룹 달성을 기원하며 참배를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은 2020년 목표를 ‘고객신뢰’와 ‘혁신’으로 잡았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며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매사에 정성과 믿음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변화를 강요받기 전에 먼저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룹표준 정보보호 체계 확립… “고객 신뢰 이끌 것”

우리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손익은 1조6657억원으로 경상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금융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더불어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인수합병(M&A)에 잇달아 성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확충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은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국내·외 경기 침체는 장기화 되고 있으며, 오픈뱅킹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간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유망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그룹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손 회장은 모든 임직원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하면서 우리금융의 새해 경영 목표를 ‘고객신뢰와 혁신으로 1등 종합 금융그룹 달성’이라고 선언했다.

7대 경영전략으로는 ▲고객 중심 영업혁신 ▲리스크관리·내부통제 혁신 ▲지속성장동력 강화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디지털 혁신 선도 ▲글로벌 사업 레벨업(Level Up) ▲우리투게더(Woori Together) 시너지 확대를 제시

했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은 지난해 수립한 ‘그룹표준 정보보호 자율 운영체계’와 ‘그룹사 자율 점검체계’를 고도화 할 방침이다.

그룹표준 정보보호 자율 운영체계는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에프아이에스·우리증권·우리신용정보 등 각 그룹사가 지난해 11월 수립한 고객 정보보호 표준 정책이다. 4개의 정보보호 법규(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에 기반해 각 그룹사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표준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했다.

향후 각 그룹사는 ‘PDCA(Plan-Do-Check-Act)’기법을 활용해 그룹 표준정책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PDCA기법은 수립된 그룹 정보보호 표준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그룹별 정보보호 조직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 정책은 지난해 1월 제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그룹 관점의 표준화된 정보보호 운영체계 수립 및 자율적 점검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2020년에는 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사내 벤처 강화로 신성장동력 확보

우리금융은 ‘은행 안에 은행(Bank in Bank·BIB)’ 체제로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업투자금융(CIB) 등 미래성장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운영을 시작한 BIB체제는 우리금융이 디지털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디지털금융그룹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해 디지털 금융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했으며, 예산·인력 운영·상품 개발 등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오픈 API 기반의 전략적

제휴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조직 내 혁신 DNA도 심는다.

우리금융은 지난 7월 그룹 차원의 사내벤처 제도인 ‘우리 어드벤처(A-D Venture)’를 도입했다. 우리 어드벤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모험심 강한 벤처집단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우리금융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의 운영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소규모 자발적 혁신조직인 ‘우리 어드벤처’의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의 장점인 신속한 실행력·개방형 혁신·도전하는 문화를 전 그룹사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최소요건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빠르게 고객 반응을 측정해 다음 아이디어에 반영하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최소화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최근 업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의 가속화로 금융기관도 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사내벤처 제도 운영으로 조직 내 혁신문화를 안착시키고, 전 그룹사 임직원의 잠재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기보, 소·부·장 기업 3000억대 특례 보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특성에 맞춰 R&D·사업화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자립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Track1)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Track 2)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중 테크·브리지(Tech-Bridge) 활용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 기업으로, 기업별 특성에 맞춰 R&D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기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올리고, 보증료는 최대 0.4%포인트 감면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해 소부장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자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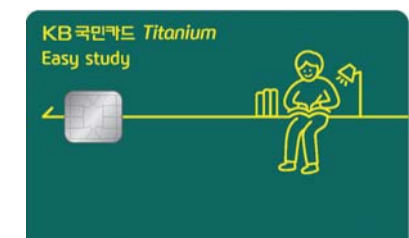
한편,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일본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피해 기업 및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 잘 사용하면 학원 강의 월 7만원 할인

KB국민카드 이지 스터디 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학원·온라인 강의 등 교육과 자기계발 관련 혜택을 담은 교육 특화 상품 ‘KB국민 이지 스터디(Easy study) 티타늄 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지난해 선보인 ▲KB국민 이지픽 카드 ▲KB국민 이지온 카드 ▲KB국민 이지 플라이 티타늄 카드 ▲KB국민 이지 오토 티타늄 카드에 이은 ‘이지카드’ 시리즈 후속 상품으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학원·온라인 강의에서 월 최대 7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지스터디 카드 /KB국민카드

학원 업종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고, 전월 이용 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원 ▲1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4만원까지 결제금액의 3%가 할인된다.

/홍민영 기자

신한금융그룹-美 KKR, 2억 달러 전용펀드 조성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

“맞춤형 펀드로 글로벌 대체투자 역량 강화”

펀드 운용 단계별로 양사 합의 대체투자 외 다양한 협업 추진

신한금융그룹은 9일 글로벌 대체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운용사인 미국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2억 달러 규모의 신한금융그룹 전용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KKR은 1976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투자회사다. 전 세계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약 1947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대륙 16개 국가에 21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신한금융과 KKR은 지난 2018년 9월 글로벌 대체투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조성한 펀드는 KKR이 보유한 다양한 글로벌 투자 상품에 양사가 상호 협의한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투자하며, 신한금융만을 위한 단독 맞춤형(Tailor-Made) 펀드이다.



지난 2018년 9월 21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오른쪽)과 미국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조셉 배(Joseph Bea) 공동대표가 글로벌 대체투자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특히 이 펀드는 일반적인 투자 방식과 달리 자산배분 및 투자 결정 등 펀드 운용 단계별로 양사의 협의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은 KKR의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전 과정에 참여해 KKR의 글로벌 투자 경험과 역량을 직접적으로 이전(Knowledge Transfer)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신한금융은 첫번째 맞춤형 펀드의 포

트폴리오로 KKR이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모펀드(PEF) 분야를 선정했다. 신한대체투자운용을 통해 은행, 금투, 생명 및 오렌지라이프가 공동 참여하는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런칭했다.

두번째 포트폴리오는 안정적 투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인프라 부문을 선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SH수협은행, 내일 오전 1~5시 금융거래 중단

SH수협은행이 오는 11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

수협은행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작업에 따라 오는 11일 새벽 1시부터 5시까

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 자동화기기 등 모든 금융서비스가 중단된다고 9일 밝혔다.

단, 신용카드 승인(체크카드 불가),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한 사고신고(카

드, 통장, 자기앞수표 등)는 가능하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을 거래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운영 안정성이 강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작업을 완료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